

## < 要 約 >

### 1. 最近 金融産業 改編의 動向

- 정부는 96년에 은행 합병 시사, 국민투자신탁의 증권사 전환 및 민영화 계획 발표, 97년의 한승수 경제부총리의 금융개혁 발언 등의 일련의 발표 및 조치를 통해 금융개혁의 골격을 잡아왔음
- 1월 7일에는 김영삼대통령의 금융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임을 밝혀 금융개혁이 곧 단행할 것으로 보임

### 2. 國民投信의 證券社 轉換의 內容

- 12월 30일 발표된 「國民投信의 經營正常化 및 長期發展計劃」에 의하면 국민투신은 기존의 투신업무, 영업점의 일임매매를 제외한 증권업무, 종금의 기업 어음(CP)의 매매 및 중개 업무까지 하게되어 투자은행의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되었음
- 국민투신은 3대 투신 업체중 가장 후발 기업으로 규모가 가장 작으며 누적 결손금액이 자본을 완전히 잠식하고도 남는 적자 기업임
- 정부는 96년 11월 현재 누적 결손이 4,726억 원에 달하는 국투의 증권사 전환 및 민영화를 통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개혁 추진상 선결 과제인 투신 문제를 정리함

### 3. 政府의 金融産業 改革(案)의 基本 骨格

- (基本 方向)
  - 증권산업 개혁안의 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金融制度, 金融의 證券化 및 凡世界化 대비, 그리고 國際 金融制度와의 整合性 제고임
  - 基本 原則은 進入 및 業務 領域 規制 緩和와 大型化, 專門化임
  
- (推進 方案)
  - 金融産業을 銀行, 證券, 保險 業種으로 大分類
  - 業種內 業務 領域 制限을 縮小하고 최대한 自由競爭을 保障함
  - 業種間 兼業化 허용
  - 大型化 및 專門化
  
- (示唆點)
  - 기업의 金融機關 所有 制限은 緩和 예상
  - 기존의 制限 業種 進入이 可能해질 전망이다
  - 綜金의 業務 領域 擴大 및 長期的 投資銀行化
  - 證券社의 二分化

### 4. 先進國 金融改革의 事例

- 영국은 지난 86년에 쇠약해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빅뱅(Big Bang)을 단행하였음
  
- 일본은 96년 11월 하시모토 총리가 금융산업 개혁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동경 금융시장의 경쟁력 약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
  
- 미국은 겸업화를 금지한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igall Act)의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1. 最近 金融產業 改編의 動向

- (動向)
  - 정부는 96년에 은행 합병 시사, 국민투자신탁의 증권사 전환 및 민영화 계획 발표, 97년의 한승수 경제부총리의 금융개혁 발언 등의 일련의 발표 및 조치를 통해 금융개혁의 골격을 잡아왔음
  - 1월 7일에는 김영삼대통령의 금융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임을 밝혀 금융개혁이 곧 단행할 것으로 보임
- (措置)
  - 96년: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 계획 발표  
은행에 장기금융채 발행 허용  
국민투신의 증권사 전환 및 민영화 발표
  - 97년: 종금사의 증권 업무 일부 허용  
대투, 한투, 지방 5개 투신의 증권사 전환 및 민영화 계획 발표  
금융종합전산망 추진 계획 발표

#### ○ 最近 發生한 一連의 事案

최근 정부는 금융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여 금융 개혁 단행이 임박하였음을 시사하였음

- 최근 들어 정부는 金融改革에 관한 具體的인 方向과 措置를 연이어 발표하여 金融改革 斷行이 臨迫하였음을 示唆하고 있음
  - 96년 중 政府는 合併을 통하여 銀行의 大型化를 誘導할 것임을 밝혔으나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金融改革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투신사의 증권사 전환으로 금융개혁의 사전조치가 마무리되었음

- 지난 12월 30일에 이어 1월 4일에는 金融改革의 가장 큰 난제였던 3대 投信에 대하여 證券社 轉換 및 民營化로 입장을 정리하여 金融 改革의 추진을 위한 事前 措置를 마무리 지었음
  - 이는 金融 改革에 있어서 최초의 구체적인 조치였음
  - 12월 30일에는 「國民投信의 經營正常化 및 長期發展計劃」에서 國民投信의 綜合投資銀行化를

발표하였음

- 또한 1월 4일에는 大投, 韓投, 그리고 地方 5個 投信사마저 증권사로 전환하고 민영화할 것임을 밝혔음

- 金融產業 발전을 위한 基幹投資인 金融部門 綜合 電算網 추진을 1월 5일에 발표하였음

- 1월 6일에는 韓昇洙 經濟副總理가 金融機關長 新年賀禮에서 "경제의 혈맥을 이루는 金融部門의 改革은 우리 경제의 體質 改善을 위한 先決 課題"라고 말하고 "金融圈間 進入·退出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겠다"고 밝혔음

김영삼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관한 연두 기자회견에서 금융개혁을 발표하였음

- 金泳三 大統領은 97년 1월 7일 國政運營에 관한 年頭 記者會見에서 「金融改革委員會」를 大統領 直屬機關으로 設置할 것임을 밝힘
  - 이는 지난 11월 하시모토 총리에 의한 日本 金融改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한국도 본격적인 金融 改革이 단행될 것임

### ○ 現在까지 發表된 政府 措置

- 지난 96년 政府는 合併을 통한 銀行의 大型化를 誘導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 이는 市場開放에 對備하여 金融機關의 大型化라는 世界的인 趨勢를 반영한 것임
  - 또한 引受 合併의 경우에 한하여 整理解雇를 許容하여 銀行의 競爭力 強化에 대한 일단의 見解를 보였음
- 96년 말에는 市中銀行의 長期金融債 發行을 許容하였음

- 이는 金融機關의 業務 制限을 撤廢하는 措置임
- 이에 따라 종래에 長期信用銀行과 產業銀行의 獨占的 地位가 없어지고 業種內에서의 自由競爭의 폭이 커졌음
- 投信社의 證券社 轉換 및 民營化를 발표하여 金融 改革의 가장 큰 난제를 해결하였음
  - 12월 30일에는 「國民投信의 經營正常化 및 長期發展計劃」에서 國民投信의 綜合投資銀行化를 발표하였고 投信, 綜金, 證券의 業務를 제한적 이나마 모두 허용하였음
  - 지난 4일에는 大投, 韓投, 그리고 地方 5個 投信社마저 證券社로 轉換할 것임을 밝혔음
  - 또한 投信의 증권사 전환에 따른 綜金 業務 침범에 대하여 綜金에는 證券 業務의 一部를 許容하기로 하였음
  - 이는 投信, 證券, 綜金の 綜合投資銀行化와 함께 金融產業을 銀行, 證券, 保險으로 大分類하는 것을 의미함

## 2. 國民投信의 證券社 轉換의 內容

### ○ (概要)

- 12월 30일 발표된 「國民投信의 經營正常化 및 長期發展計劃」에 의하면 국민투신은 기존의 투신업무, 영업점의 일임매매를 제외한 증권업무, 종금의 기업 어음(CP)의 매매 및 중개 업무까지 하게되어 투자은행의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되었음
- 투신운용은 증권사 전환후 1년 이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분리하도록 하였음
- 상대적으로 입지가 취약해진 종금에는 증권 업무의 일부를 허가하였으나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음

### ○ (背景)

- 96년 11월 현재 누적 결손이 4,726억 원에 달하는 국투의 증권사 전환 및 민영화를 통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함
- 금융개혁 추진상 선결 과제인 투신 문제를 정리함

### ○ (經營 現況)

- 3대 투신 업체중 가장 후발 기업으로 규모가 가장 작음
- 누적 결손금액이 자본을 완전히 잠식하고도 남는 적자 기업임
- 부채가 96년 3월 현재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자산보다 규모가 큼

### ○ 概要

- 財政經濟院은 지난 12월 30일 「國民投信의 經營正常化 및 長期發展計劃」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大投, 韓投와 地方 5個 投信社도 證券社 轉換 後 民營化를 계획하고 있음

국민투신은 투신, 증권, 종금업을 모두 수행하는 최초의 종합 투자은행이 됨

- 동 計劃의 주요 골자는 國民投信을 證券社로 轉換하여 證券, 投信, 綜金 業務를 수행하는 投資銀行으로 육성하는 것임
  - 國民投信을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기위해 主要 綜金 業務의 兼業 許容
  - 長期的으로 業務 領域을 확대하며 綜合投資銀行業 認可를 우선 許容

투신 운용은 증권사 전환 1년 이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분리함

- 이에 따라 國民投信은 기존의 投信業, 證券社 業務, 企業어음(CP)賣買 및 仲介 業務까지 수행하는 最初의 綜合投資證券社가 됨
- 97년 2월부터 假稱 國民投新證券을 설립하고 영업함
- 投信의 收益證券 販賣 및 運用 업무는 지속하나, 轉換 1년내에 投信運用子會社를 設立하여 投信 운용을 분리함
- 기존 證券社와는 달리 營業店의 委託 賣買 業務는 하지않음
- 綜金業중 投資銀行 업무인 企業어음 賣買 및 仲介 業務를 取扱함

### ○ 背景

국민투신 증권사 전환의 배경은 국투의 경영 정상화와 금융개혁의 시장에 있음

- 國民投信의 經營 不實化
  - 國民投信은 96년 11월 현재 累積 缺損이 4,726억 원에 달함.(95會計年度 當期純損失 1,179억 원, 96.4-96.11 899억 원)
  - 借入金이 2조 2천억 원에 달해 月 金融費用 100억 원으로 부담이 너무 크고 따라서 正常的인 經營이 어려움
  - 이에 따라 國民投信을 民間企業에 賣却하여 責任 經營 體制를 구현하려는 것임
- 金融産業 改革의 始作
  - 金融産業 改革의 基本 方向은 金融産業을 銀行, 證券, 保險의 3개 業種으로 區分하여 業種內 自由競爭과 子會社를 통한 業種間 進出을 보장하는 것임
  - 그러나 金融産業 改革을 推進하기 위해서는 먼저 韓國投信, 大韓投信, 國民投信의 3대 投信社

의 처리 방안을 만들어야 했음

- 따라서 國民投信의 증권사 전환은 韓國 金融 빅뱅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國民投資信託의 現況

국민투신은 3대 투신중 3위 업체로 누적 결손이 4,726억 원에 달함

- 國民投資信託은 3대 投信中 3位 업체임.
  - 營業收益, 總資產, 資本金, 支店數 등 모든 면에서 規模가 가장 작음
- 國民投信의 經營 實績은 극도로 惡化되어 있음
  - 總資產回轉率(單位 資產當 營業收益의 創出 程度)은 國投 12.2%, 大投 13.5%, 韓投 14.4%로 國投가 가장 낮음
  - 또한 96년 11월 현재 累積 缺損 規模가 4,726억 원으로 資本(600억 원)이 완전히 잠식되었음
  - 96년 3-11월 중에도 899억 원의 純損失을 기록
  - 保有 資產의 評價損도 95.11 현재 5,507억 원임

<3대 投信社의 經營 現況 比較>

(단위: 억 원)

	국민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95.3	96.3	95.3	96.3	95.3	96.3
영업수익	2,781	2,262	4,693	3,183	5,565	3,505
당기순이익	664	-1,179	2,100	48	2,833	136
총자산	1.6조 원	1.9조 원	2.1조 원	2.4조 원	2.2조 원	2.4조 원
운용자산(현재)	10조 원		20조 원		23조 원	
부채	1.8조 원	2.2조 원	1.9조 원	2.2조 원	2.1조 원	2.4조 원
자본금	600	600	1,000	1,000	1,000	1,000
이익잉여금	-2,647	-3,826	582	615	-448	-393
지점수	43개		48개		46개	



### 3. 政府의 金融産業 改革(案)의 基本 骨格

○ (基本 方向)

- 증권산업 개혁안의 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金融制度, 金融의 證券化 및 凡世界化 대비, 그리고 國際 金融制度와의 整合性 제고임
- 基本 原則은 進入 및 業務 領域 規制 緩和와 大型化, 專門化임

○ (推進 方案)

- 金融産業을 銀行, 證券, 保險 業種으로 大分類
- 業種內 業務 領域 制限을 縮小하고 최대한 自由競爭을 保障함
- 業種間 兼業化 허용
- 大型化 및 專門化

○ (示唆點)

- 大그룹의 金融機關 所有 制限은 緩和 예상
- 기존의 制限 業種 進入이 可能해질 전망임
- 綜金의 業務 領域 擴大 및 長期的 投資銀行化
- 證券社의 二分化

- 政府의 金融産業 改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證券産業改編 研究班의 報告書에 기본 골격이 나타나 있음
- KDI와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작성한 「證券關聯産業의 改編方案」은 이미 95년 9월에 재무부에 제출되었음
- 그러나 3대 投信의 장래에 관한 입장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金融改革의 발표가 늦어진 것으로 보임
- 다음은 「證券關聯産業의 改編方案」의 내용을 보완 정리한 것임

금융개혁의 기본 방향은 경쟁 촉진, 규제 완화, 경쟁력 제고임

○ 基本 方向

- 目的
  - 이용자의 편익을 우선하는 金融制度 구축
  - 金融의 證券化 추세를 효과적으로 수용

- 金融의 凡世界化에 대비
- 國際的 金融制度와의 整合性 제고

- 基本 原則

- 競爭 促進을 위한 進入 및 業務 領域에 대한 規制 緩和와 規制 內容의 單純化
- 業務 領域 擴大와 專門化 또는 大型化 誘導
- 過渡期的 혼란방지를 위한 金融의 安定性 유지

추진 방안은 금융 산업을 은행, 증권, 보험으로 분류하여 업종내 경쟁을 촉진하고 업종간 상호 진출을 허용하고, 금융기관을 대형화 전문화하는 것임

○ 推進 方案

- 金融産業을 銀行, 證券, 保險 業種으로 大分類
  - 銀行 업종에는 기존의 銀行, 카드, 리스 등이 포함됨
  - 證券 업종은 證券, 綜金, 投信, 投資諮問 등으로 구성됨
  - 保險 업종은 生保와 損保로 예진과 같음
- 業種內 業務 領域 制限을 縮小하고 최대한 自由 競爭을 保障함
  - 證券 業種은 證券, 綜金, 投信의 업무 구분이 없어지게 되며 과생상품의 취급도 가능해짐
  - 證券社가 投信 運用은 겸할 수 없도록하여 投信運用會社를 별도로 設立하도록 하였음
  - 또한 銀行, 證券, 保險의 各種 手數料率을 自由化하여 市場의 價格機能을 보장함
  - 은행의 경우처럼 증권도 支店開設 制限은 廢止될 것으로 보임
- 業種間 兼業化 허용
  - 은행, 증권, 보험 업종이 子會社 出資를 통하여 相互 進出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다른 업종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다른 업종의 상품을 일부 포함한 복합서비스 提供이 허용됨

- 大型化 및 專門化
  - 金融機關間의 引受 合併을 허용하여 大型化가 가능하도록 함
  - 또한 中小 金融機關은 專門的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함
  - 97년중에는 銀行間의 引受 合併도 예상됨
  - 증권의 경우 大型 證券社는 大型 綜合投資銀行으로 小型은 브로커리지 專門化로 가계될 전망

대기업의 金融기관 소유 제한 완화, 부실 金融기관의 대기업 인수나 金融기관간 합병 증가, 업종 진입 제한 완화, 종금의 투자은행화 등이 전망됨

○ 企業 관련 內容 및 示唆點

- 企業의 金融機關 所有 制限은 緩和 예상
  - 國民投信에 대한 大企業의 지분 인수 제한을 두지않는 것에서 보듯이 企業의 金融機關 所有 制限은 緩和될 것으로 보임
  - 다만 産業資本과 金融資本의 獨占的 結託에 대한 規制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不實 金融機關에 대한 企業 引受 또는 金融機關 合併 誘導
  - 國際 競爭力 強化 次元에서 經營이 不實한 金融機關은 合併을 誘導하거나 企業의 引受로 競爭力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망됨
- 기존의 制限 業種 進入이 可能해질 전망임
  - 金融 改革이 시작되었다고 볼 때 銀行, 生保, 카드業 등에 대한 進入 制限이 緩和될 전망임
- 綜金の 業務 領域 擴大 및 長期的 投資銀行化
  - 綜金은 投金社의 綜金 轉換, 여타 金融機關의

- 綜金 業務 取扱 등으로 競爭이 深化되어 있음
  - 이에 國民投信이 일부 綜金 業務를 영위하게 되었고 大投, 韓投 및 地方 投信社에도 같은 업무를 許容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이렇게 綜金業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綜金の 業務 領域 擴大 措置가 豫想되며, 이미 有價證券 引受 業務가 許容되었음
  - 장기적으로 綜金を 投資銀行으로 유도할 것임
- 證券社의 二分化
- 정부의 證券 業種 政策 方向이 綜合投資銀行 育成 및 業種內 競爭 유도임
  - 따라서 기존의 大型社를 중심으로 投資銀行化가 예상되며, 中小型 證券社들 사이의 브로커리지 營業 競爭이 深化될 전망임

#### 4. 先進國 金融改革의 事例

- (動向) 선진국 금융 산업 정책은 크게 겸업화와 자율화로 요약됨
- (英國) 영국은 지난 86년에 취약해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빅뱅(Big Bang)을 단행하였음
- (日本) 일본은 96년 11월 하시모토 총리가 금융산업 개혁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동경 금융시장의 경쟁력 약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
- (美國) 미국은 겸업화를 금지한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의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선진국 金融산업 정책은 크게 兼業化와 自律化로 요약됨
  - 세계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됨
  - 그러나 과거의 독점을 막기위한 전업주의 및 규제정책이 金融機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국은 1986년에 빅뱅(Big Bang)이라고 불리는 金融 改革을 단행하였고, 일본은 金融產業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金融 革新案이 마련되고 있으며, 미국도 兼業化를 금지하는 글래스-스티걸 법(1933)의 폐지를 논하고 있음

#### ○ 英國의 빅뱅(Big Bang)

- 은행 및 증권업의 전업주의 성격을 지녔던 영국 金融제도는 1986년 10월에 단행된 Big Bang으로 겸업주의로 전환되었음
  - 이는 영국 金融機關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1992년의 EU 통합에 대비한 조치였음
- Big Bang의 주요 내용은 은행, 증권, 보험의 상호 진입 허용, 증권거래 수수료의 자유화, 증권거래소 회원권 취득 자격 조건의 완화, 단일 자격

제도의 폐지, 정부채시장 개방 등임

○ 日本 金融 革新의 靑寫眞

- 金融改革案의 목적은 뒤쳐지는 일본 金融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2001년까지 자유경쟁, 투명성, 국제성을 달성하는 것임
- 金融改革案의 큰 방향은 金融 산업을 크게 은행, 증권, 보험으로 구분하여 업종내의 자유 경쟁을 유도하고 업종간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진출을 허용하는 것임
- 또한 金融支柱會社 설립, 보험·증권 수수료의 자유화, 외환거래 제한 철폐, 金融機關의 자산운용 규제 철폐가 포함됨

< 표 > 최근 日本 金融改革의 主要 內容

구분	내 용
규제 완화	- 독점금지법 개정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 금융산업을 은행, 증권, 보험으로 대분류하고 업종내 자유경쟁체제 도입과 업종간 상호 진출로 겸업화 인정
금융 자율 화	- 일반 시중은행의 장기채 발행 허용 - 자산 운용 제한 철폐 · 신탁과 생보의 연금자산 운용 제한 철폐(기존: 국채 50% 이상, 주식 30% 이하 제한) · 증권투자신탁사의 모험기업 및 비공개기업 투자 허용 - 각종 요율 산정 자율화 · 주식 매매시 고정 수수료를(기존: 0.1-1.15%) 자율화 · 손보요율자율화(기존: 손보요율산정회가 산출하여 대장성 인가)
영향	- 중소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도산 가능성 상승 - 예금주의 보호 문제 대두 -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 전략적 제휴 진전

○ 美國의 金融 政策 展望

- 미국내에서는 商業銀行과 投資銀行間의 兼業을 禁止하고 있는 글래스-스티걸 法(Glass-Steagall Act) 때문에 金融産業의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는 논의가 進行되고 있음
  
- 영국에 이어 일본도 겸업주의를 택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미국도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 작업이 加速화되고 있음

(한상완)